야구대표팀 차우찬 "몸 상태, 재활 마친 뒤 가장 좋아"

작년 7월 어깨 부상으로 시즌 일찍 접어
지난달 마운드 올라 호투 거듭 대표팀 승선
"올림픽,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 있는 대회"

야구대표팀 투수 차우찬(34·LG 트윈스)이 몸 상태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차우찬은 21일 고척스카이돔에서 진행된 대표팀 훈련에 앞서 취재진을 만나 "재활을 마친 뒤 가장 좋은 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부상 우려가 컸던 투수인 만큼 반가운 소식이다.

차우찬은 지난해 7월 어깨 부상으로 시즌을 일찍 접었다. 1년 여의 재활을 거친 끝에 지난달 6일에야 마운드에 섰다. 뒤늦게 시즌을 시작했지만, 거듭 호투를 펼치면서 지난달 16일 발표된 2020 도쿄올림픽 최종 엔트리에도 승선했다.

기대와 우려가 공전하는 발탁이었다. 차우찬은 현재 대표팀 투수진 중 국제 대회 경험이 가장 풍부하다.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아시안게임, 프리미어12 등에 참가, 통산 15경기 29⅔이닝 5실점 4자책점 평균자책점 1.21의 성적을 냈다.

그러나 부상을 털어낸 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몸 상태에 대한 걱정이 컸다. 지난달 26일 삼성 라이온즈전에서 5이닝 7실점(6자책점), 5일 한화 이글스전에서 1⅓이닝 5실점으로 연거푸 무너져 불안함을 더 키웠다.

이러한 시선을 차우찬이 차단하고 나섰다.

"전반기를 마치고 시간이 꽤 길었기 때문에, 올림픽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컨디션 관리가 잘 되고 있다. 공도 좋아지고 있다"고 말한 차우찬은 몸 상태에 대해서도 "재활을 마치고 돌아온 지 얼마 안 되긴 했지만, 그 이후로 가장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몇 년간 선발 투수로 활약하고 있는 차우찬은 국제 대회에선 주로 불펜 역할을 맡았다. 이번 대회에서도 중간 계투를 맡을 전망이다.

차우찬은 "원하는 보직은 없다"면서 "최일언 투수코치님과 대표팀 합류전 이야기했을 때, 중간 투수로 나설 확률이 높으니 준비를 잘해달라고 하셨다. 나도 중간 투수로 나갈 거라 생각하고 있어 여러가지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경문 대표팀 감독은 차우찬에 대해 "투수들은 다 연투를 고려해 뽑았다"며 "차우찬도 몸이 안 좋았다면 나에게 안 좋다고 했을 거다. 차우찬이 몸 관리를 잘하는 선수로 알고 있으니, 중간에서 상황에 맞게 끔 잘 기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제는 태극마크가 낯설지 않은 차우찬이지만 올림픽은 또 다르다. 올림픽 출전은 그에게도 처음이다.

"올림픽은 운동 선수들에게 가장 큰 무대다. 나에겐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 있는 대회"라고 짚은 그는 "무엇보다 오승환(삼성) 선배가 합류해서 든든한지만, 그 다음으로 내가 가장 맏형이다. 선수들을 잘 이끌어서 좋은 성적을 내야 한다는 책임감과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고 털어놨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한국 대표팀이 '9전 전승'의 신화를 쓰며 금메달을 수확했을 당시 프로 3년 차였던 차우찬은 재활을 하며 TV로 대회를 지켜봤다.

도쿄올림픽에 출전하는 야구대표팀 차우찬이 20일 오후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서 훈련을 하고 있다.

이제는 직접 꿈의 무대에 선다.

최근 일부 선수들의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으로 분위기가 가라앉은 데다 대표팀 전력이 약해졌단 평가를 받고 있지만, 베테랑 투수로서 큰 꿈을 품고 있다.

차우찬은 "2008년에는 워낙 멤버들도 좋고, 성적도 좋았지만 지금 분위기는 조금 다른 것 같다"면서도 "선수들이 잘 뭉쳐서 좋은 성적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뉴시스

고흥군청 여자볼링팀, 전국볼링대회 입상 쾌거

제22회 대한 볼링협회장배 대회에서 동메달 획득

고흥군은 '고흥군청 직장 여자 볼링팀'이 '제22회 대한 볼링협회장배 전국볼링대회' 단체전 5인조 경기에서 동메달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4일부터 20일까지 7일간 전주시 라온 볼링경기장에서는 고흥군청 볼링팀을 포함 16개 직장 팀이 참가한 가운데 제22회 대한 볼링협회장배 전국볼링대회가 열렸다.

이 대회에서 고흥군청 여자볼링 팀은 단체전 5인조 경기에서 국가대표 선수들로만 구성된 2개 팀을 모두 제치고 동메달을 차지함으로써 지난 2019년 한국실업볼링연맹회장기 종합우승에 이어 고흥군 볼링의 명성을 다시 한 번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고흥군청 여자 볼링팀 선수 6명(강유라, 이혜미, 이미소, 김진영, 남은설, 김동요) 모두는 학교 볼링 팀이 구성된 고흥의 중·고등학교에서 선수로 활동하다 고흥군청 직장경기부로 입단한 향토 선수들로만 구성되어 있으나, 이번 대회로 인해 고흥 향토 선수들의 기량이 국가대표 선수 못지않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한편, 고흥군청 볼링팀은 고흥군의 지원을 바탕으로 정연호 감독의 열정 어린 지도와 선수들의 피땀 어린 훈련을 통해 각종 전국 규모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등 명실상부한 전국 우수 볼링 팀으로 고흥군의 위상을 높여가고 있다.

기동취재본부

야구대표팀 내일부터 3일간 평가전

상무·LG·키움 통해 실전 공백 메워…김경문 감독 "최종 점검"

김경문 감독이 이끄는 한국 야구대표팀이 3차례 평가전을 통해 실전 감각을 끌어 올린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020 도쿄올림픽에 나서는 야구대표팀이 상무, LG 트윈스, 키움 히어로즈와 평가전을 치른다"고 21일 발표했다.

3일 연속 경기를 갖는다.

23일 오전 6시30분 상무와 맞붙고, 24일 오후 5시에는 LG, 25일 오후 2시에는 키움을 상대한다. 평가전 중계 계획은 추후 발표된다.

당초 대표팀은 23일 라이징 스타, 25일 키움과 평가전을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10개 구단에서 모인 선수들이 한 팀으로 경기를 치르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 라이징 스타와 경기를 취소했다.

김경문 감독은 "상황이 어려운데 시간을 내준 상무와 LG, 키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평가전에서는 선수들과 나의 호흡도 맞추고, 사인도 점검할 예정이다. 최종 점검하고 일본으로 갈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하겠다"고 말했다.

대표팀은 3차례 평가전에서 실전 감각을 조율한 뒤 26일 '결전의 땅' 일본 도쿄로 출국한다. 29일 이스라엘, 31일 미국과 조별 예선 경기를 치른다.

김민재 없는 김학범호…뉴질랜드전 수비조합 찾기 관건

13일 오후 경기 용인시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 열린 올림픽 축구대표팀 평가전 대한민국과 아르헨티나의 경기 후반전, 대한민국 정태욱이 헤더슛을 하고 있다.

오늘 오후 뉴질랜드와 첫 경기

2020 도쿄올림픽 첫 일전을 하루 앞둔 김학범호가 최상의 수비 조합을 찾기 위해 분주하다.

김학범 감독이 이끄는 한국 올림픽 축구대표팀은 22일 오후 5시 일본 이바라키 가시마 스타디움에서 뉴질랜드와 대회 조별리그 B조 1차전을 치른다.

대표팀은 올림픽 대한민국 선수단 전체 첫 경기이기도 한 뉴질랜드전 승리로 9년 만의 메달 사냥을 위한 산뜻한 출발을 하겠다는 각오다.

고민은 수비에 있다. 와일드카드였던 김민재(베이징궈안)가 소속팀의 반대로 일본 출국 하루 전인 지난 16일 올림픽 출전이 무산되면서 수바 라인에 구멍이 생겼다.

대체 선수로 박지수(김천)를 긴급 수혈했지만, 본선 첫 경기까지 호흡을 맞출 시간이 적어 뉴질랜드전에 선발로 나설지는 미지수다.

김학범호는 대회 전 아르헨티나(2-2 무), 프랑스(1-2 패)와의 두 차례 평가전에서 연이어 2골을 내주며 수비 불안을 노출했다.

김민재가 오면 나아질 거란 희망은 도쿄올림픽 출전 불발로 사라졌다.

김 감독은 아르헨티나전에 정태욱(대구)과 함께 김재우(대구)를 선발 조합으로 세웠고, 프랑스전은 정태욱과 이상민(이랜드)을 내보내는 등 최상의 조합을 찾기 위한 실험을 이어왔다.

194㎝ 장신 수비수 정태욱이 붙박이 주전인 가운데 누가 뉴질랜드전 파트너로 낙점될지가 관건이다.

김재우는 소속팀에서 함께 발을 맞춰 조직력에는 문제가 없다. 다만, 아르헨티나와 평가전에서 드러났듯이 두 선수 모두 장신에 비해 발이 느려 상대 발 빠른 역습에 고전했다.

또 추가 엔트리로 도쿄행이 확정된 이상민은 프랑스전에서 후반 막판까지 견고한 모습을 보였으나, 역전패를 막지 못하면서 불안감을 노출했다.

뒤늦게 합류한 대체 와일드카드 박지수는 출국 직전 합류하는 바람에 기존 중앙 수비진과 발맞출 시간이 나흘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김 감독이 첫 판부터 수비 라인에 변화를 줄 가능성은 낮다.

조별리그 이후 토너먼트까지 길게 볼 때 박지수는 시간을 두고 서서히 출전 시간을 늘릴 것으로 보인다.

뉴질랜드는 김학범호의 첫 승 제물로 꼽히지만, 와일드카드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에서 뛰는 골잡이 크리스 우드(번리)가 가세해 절대 만만치 않은 상대로 평가된다.

191㎝ 장신의 우드는 EPL에서 4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린 검증된 스트라이커다.

김학범호는 우드의 높이를 대비해 일본 현지에서 상대 프리킥과 코너킥 등 세트피스에 대비한 훈련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감독은 이번 올림픽에 확실한 주전은 없다며 상대에 따른 맞춤형 베스트11을 가동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뉴질랜드전 역시 경기 전날까지 수비 조합을 찾기 위한 노력이 계속될 전망이다.

체조 양학선, 런던 도약 도쿄서 다시

한국 체조 역사상 최초 런던올림픽서 도마 金…부상 극복 발탁

한국 체조의 간판 양학선(29·수원시청)이 2020 도쿄올림픽에서 다시 한 번 도약을 꿈꾼다.

오는 23일 개막하는 도쿄올림픽을 대하는 양학선의 마음가짐은 남다르다. 과거 좋았던 기억을 되살림과 동시에 국제대회에서의 오랜 침묵을 깨기 위한 의지가 강하다.

'도마의 신'으로 불린 양학선은 2012 런던올림픽 남자 도마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국 체조 사상 최초의 올림픽 금메달이다.

만 20세가 되지 않은 어린 나이에 158cm의 작은 양학선이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순간이다.

이듬해 안트워프 세계선수권대회와 카잔 하계유니버시아드에서 연거푸 정상에 오르며 탄탄대로를 이었다.

올림픽 연패도 무난해 보였다.

그러나 혹독한 시련이 찾아왔다. 양학선은 아킬레스컨과 햄스트링 부상에 시달리며 고전했고, 결국 2016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했다.

양학선은 지금도 "부상으로 기권을 하고 재활 훈련을 할 때가 가장 힘들었다"고 기억했다.

이번 국가대표 선발전에서도 우여곡절이 있었다. 오른 햄스트링 통증으로 정상 컨디션을 유지하기 어려웠다.

대한체조협회는 부상에서 회복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으로 양학선을 조건부 선발했고, 최종적으로 도쿄올림픽 대표팀에 합류하게 했다.

체조는 새 기술이 나오면 최초로 성공한 선수의 이름을 따 국제체조연맹(FIG)의 기술집에 등록한다.

양학선이 2011년 성공한 기술 '양'은 지금도 세계 최정상급 기술로 꼽힌다. 도마를 짚고 공중에서 세 바퀴를 비트는 어려운 기술이다. 난도 6점대의 최고급 기술로 성공만 하면 올림픽은 물론 대부분 대회에서 입상이 가능한 수준이다.

미국의 체조전문잡지 '인터내셔널 짐내스트'는 양학선이 도쿄올림픽에서 도마 금메달을 획득할 것으로 보인다며 '왕의 귀환'을 전망했다.

이성호, 올림픽 출전권 와일드카드 획득…유도 전체급 출격

오는 25일 출국 예정

국제유도연맹(IJF)은 남자 ·81㎏ 이성호(29·한국마사회)가 2020 도쿄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했음을 최종 확정 통보했다.

연맹은 올림픽 출전권 배정 규정에 의거해 와일드카드로 부여받은 선수 중 1명이 코로나 양성으로 불참을 통보해옴에 따라, 남녀 전체급을 통틀어 차 순위 선수 중 세계랭킹 점수가 가장 높은 이성호에게 출전 자격을 부여했다.

도쿄올림픽에 출전하는 유도 국가대표팀은 2008년 베이징올림픽 이후 12년 만에 개인전 전체 14체급에 선수단을 파견하게 됐다.

한편, 도쿄올림픽에 출전하는 유도 국가대표팀은 선발대와 후발대로 나눠 출국 예정이며, 21일 안창림, 안바울 등 13명이 출국했으며, 후발대는 25일 이성호를 포함해 9명의 선수가 출국할 예정이다.

뉴시스